

우리하나되어

제 15권 제 5호

헬로쉽 교회 월보

2007년 5월 6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007 특별 새벽 부흥회

2007년 특별 새벽부흥회가 지난 4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버지니아 주 맥클린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있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토요일은 6시) 사순절의 마지막 열기를 힘찬 찬양과 더불어 쏟아놓았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렸던 사람처럼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새벽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즉 안내 위원들, 예배 위원들, 음향 및 비디오 시설 담당자들이 교우들보다 더욱 이른 시간에 나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언제나 늘 그러했듯이 새벽부흥회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았고, 삶의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새벽부흥회 기간 동안의 말씀을 정리해보았다.

월요일 <거룩>

대부분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한다.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싱싱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열정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열정을 소유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열정인가가 중요하다”고 김원기 목사는 지적하며 성경상의 인물 중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소유하고 지속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소유하였다.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거룩함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정리되는 것이 없다”고 김원기 목사는 강조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고 폐허로 변해버렸다. 도시는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갔다. 그들은 고향과 민족을 떠나 언어가 다른 땅에서 새로운 문화와 삶을 습득해야만 했다. 하루는 바벨론 왕이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뛰어난 소년을 골라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명하였다.

이에 다니엘과 친구 3명이 선택되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4-16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단 1:5) 세상적으로 보면 소년들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만하다. 풍성한 음식을 걱정 없이 3년간이나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절개를 끊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이기도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8) 다니엘은 미리 뜻을 정하였다. 풍성한 음식을 제안 받고서야 결정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간만 자신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흘 뒤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더 좋았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을 먹어야 윤기가 난다. 그러나 채식을 한 소년들이 빛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다니엘이 보인 윤기는 내면에서 나온 것이다. 세상적으로 갖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황폐하지 않은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윤기가 나온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결, 거룩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



지 못한 것이다.”

첫날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되찾도록 힘써 기도하였다.

화요일 <환상>

“비전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오늘 하루를 숨 쉬고 사는 이유이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자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뜻을 해석하라고 명하였다.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내용을 해석하라니? 하지만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다. 당연히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없었고,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도록 명하였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며칠의 여유를 주면 꿈을 알아내겠다고 자청하였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환상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김원기 목사는 지적하였다.

왕의 꿈은 바벨론 이후 일어날 나라들에 관한 것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내용이다.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함께 목숨을 건졌다. 또한 다니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기

까지 하였다.

“자신의 명철과 출세를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며 절대 홀로 성공하게 하시지 않는다. 함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수요일 <폴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다니엘과 친구들.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신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새로운 시련이 닥쳐왔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지어놓고 모든 관원들이 그 앞에서 절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따르지 않았다. 이에 평소 유대인을 미워하던 자들이 왕 앞에 나아와 사실을 고하자, 왕이 노하며 세 친구들을 왕 앞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꼈던 지라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폴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6-18)

“무서운 결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굽히지 않겠다. 하



나눔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꼭 연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풀무를 지나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는 시련의 작은 불이 일어나면 그 불을 끄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내 속에서 더 뜨거운 불이 일어나면 능히 작은 불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 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꿈과 환상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풀무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목요일 <회복>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갑자기 자신이 잘 해서 나라의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은 미쳐버린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이는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진 바요, 다니엘에 의해 해석되어졌던 것이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단 4:17)

하나님은 천국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다스리고 계심을 밝히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도 그 아버지의 잘못, 교만을 반복하였다. 그는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로 마시고 즐기면서 우상을 찬양하였다. 그러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써 내려갔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단 5: 25-26)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금요일 <승리>


다리오는 새로이 관리 120명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이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총리 중 하나였는데, 다리오는 특히 다니엘을 세워 전국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구실을 찾았으나 성실한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색한 것



이 바로 신앙의 정조에 대한 도전이었다. 왕으로 하여금 30일간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기도금지령’을 내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느 때처럼 창문을 열어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왕에게 고소되었고 사자 굴에 던져졌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으며, 다니엘을 위해 금식하며 걱정하였다. 이튿날 새벽 왕은 급히 다니엘에게 달려가 안부를 묻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주셨음을 밝히며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였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단 6:23-24)

“인생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사자 굴에 넣는 위기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자보다 더 능력이 강한 사람이 되면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험한 곳을 피

하게 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곳이 나로 인하여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 밝아도, 밝아도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짧은 일주일의 특별 새벽부흥회이지만 이른 새벽을 깨우고 배가 뒤틀릴 정도로 외쳐가며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가오는 앞으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위기가 다가올 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선택이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안전하게 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라”고 김원기 목사는 도전하였다. 

<정리: 오장석>

새벽부흥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본을 넘어서

2007 금식수양회

'You ain't seen nothing yet!'이라는 구호 아래 시작되어 40일간의 새벽을 깨웠던 특별 새벽 기도는 1박2 일간의 금식수양회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40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번 금식 수양회는 '기본을 넘어서 (Beyond the basics)'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두 번의 집회를 통해 김원기 목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하는 두 개의 단어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과 '영광 (Glory)'이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사라져 갔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심어주신 믿음과 소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 (history)'가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의 나라의 이야기로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내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이름은 사라져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속에 등장한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 큰 영광의 감격을 잊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집중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장, 가정,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

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들(문화, 돈, 마귀)에 굴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추하지만 나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Story)를 써나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게 비취지고 반사되어 마치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고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께게서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대한 열정(passion)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 문화, 물질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며 세상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하며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권면하신다. (마6:33).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기대해본다.

You ain't seen nothing yet! 

<정리: 복진웅>





영적인 여장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김계희

지난 10년 동안 낙심되고 슬픈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임파선 암이란 진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외롭게 투병하는 남편, 5년 전에는 저를 키우신 사랑하는 언니가 뇌수술을 받고 합병증인 우울증으로 17층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충격과 슬픔이 가기도 전에 1년 전 불쌍하게 병들은 오빠를 또 천국으로 보내고...

먼지같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구나,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차고, 저의 마음은 슬프고 외로움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빨리 도망쳐 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뜨거운 줄 모르고 익혀져서 서서히 죽는 개구리처럼...

이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저의 스트레스 지수도 점점 더 올라가고 죽을 지경에까지 다다른 개구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싸웠습니다. 저의 가슴은 멎고 굴아터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살고 있는 개미였으나 제 영혼은 병들고 지쳐 배터리가 다된 차 같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처럼 뒤쳐져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식어졌고 무디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부흥회의 주제가 '열정(Passion)' 이었고 사순절 주제는 'You Ain't Seen Nothing Yet!' 인것을 듣고, 저는 아멘

하며, 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 50분에 깨었습니다. 5시에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전에 소리지르며 시끄럽게 저를 살려달라고 30분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등을 쳐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저에게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뛰고 싶을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체면을 제쳐놓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년 전 옛날 창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할 때의 열정과 신선함을 그대로 부어 주셨습니다. 목상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를 하면 어쩌나 걱정도 하였지만 성령님은 방언기도를 끊임없이 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폭발하는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직장의 동료들은 저를 '인간 토네이도'처럼 빠르게 일한다고 놀려댔습니다. 어쩐지 환자들과 가족들에 더 친절을 베풀고 싶었고, 말로하면 될 것을 두 블럭을 더 걸어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명랑한 인사와 미소가 늘기 시작했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터를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강한 교회와 리더들과 자랑스런 아들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수면도 약의 도움이 없이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누워 예수이름을 부르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사도신경의 ‘거룩한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연상하며 기도회 중 성도의 교통함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십년 전 기도했던 “이스라엘을 키우셨고 예물을 사용하셨으니 아버지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물질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제목을 읽고, “그렇다! 그렇다! 정신차리자!”, 다시금 하나님은 저에게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크게, 더 좋아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God Expects Me Bigger and Better!!)” 더 이상 졸장부 같이 쥐새끼 같이 찌찌하게 되지 말고 영적인 여장부가 되길 원했습니다. 노후대책을 위해 벌벌 떨며 ‘돈’ 근심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일하는 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고난절 주일은 이틀만 일하기로 작정하고 특별 새벽부흥회를 즐겼습니다. 일과 기도, 둘을 같이 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복음의 큰 나무를 보게 하였고, 수 만 명이 그 나무 밑에서 생명의 과실을 따먹으며 나누는 공동체를 연상하게 하셨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얼룩진 관계를 지배하며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당당하게 저의 남편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다가는 저는 이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라고 응답하시더라고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려 합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말렸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빗물처럼 저의 가슴을 적시며 위로 해주시고 치료해주시며 저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의 지옥과 천당

- ‘향기나는 여성 만들기’를 마치고-

안혜령


불과 몇 개월전, 우리 가정 (나와 남편) 은 지옥이었다.

대화가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가정, 너는 너! 나는 나! 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고, 나 또한 상대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무관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악만 더해가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하지 않던 아집만 늘어났습니다.

3개월 전 쯤이 이러했었는데, 지금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미련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향기나는 여성 만들기의 공부를 안했다라도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의 일들이, 예를 들면 여성수양회와 40일간의 새벽기도회와 새벽부흥회, 금식 수양회, 이런 여러가지가 하나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가고 나 자신을 바꿀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를 정말 갈구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녔던 것이 너무 보람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필요한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생활에서 항상 내 주장대로 해 왔던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내 생각이 제일 현명 하다고 생각 했던것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남편의 일부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 사랑이 있는 대화로 우리집은 천당의 길로 가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봉박두

홍재현

항상 하던 대로 아내를 교회 로비 입구에 내려준 뒤 주차장을 향하는 순간, 그전에 보지 못했던 커다란 걸개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You Haven’t Seen Nothing Yet!!” 이라는 글과 함께 아름다운 초록숲이 배경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본 순간, 전에 학원에서 영어 수강할 때 강사 선생님이 귀에 박히도록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한 문장 안에 부정어가 둘이 있으면 절대 답이 아니니까 문제 풀 때 쳐다보지도 말라.” 난 순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건 답이 아니네!”

한 주간이 지나 다음주가 됐다. 난 또 하던대로 아내를 교회 로비 입구에 내려준 뒤 또 그 걸개그림을 보게 되었다. ‘어! 저게 아직도 걸려 있네! 아니 그럼 혹시 저게 ‘답’?’ 어쩌면 그 문장이 ‘답’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의 머리는 문장 해석을 시작했다. ‘너가 곧 보리라!’ 네자로 줄이면 ‘개봉박두!’ 한 주간 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문장의 뜻이 ‘개봉박두!’ 라고 생각되자 괜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시고 저렇게 ‘개봉박두’라고 써 붙여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것일까!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일주일 짜리 새벽부흥회만 나가본 나에게는 한가지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짜를 카운트 다운 하는 것이었다.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에 비축한 체력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지만 수요일부터는 어김없이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아!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아! 이제 이틀, 아! 이제 하루만 버티면 6개월이 또 편안하겠구나! 그렇게 보냈던 지난 3년간의 봄, 가을 새벽부흥회.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틀렸다. 자그마치 40일인 것이다. 예전의 버릇대로 카운트 다운을 하며 버티고 싶었지만 이번엔 계산법이 복잡했다. 그냥 끝부터 40일째가 아니라 ‘주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고,



아무튼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카운트 다운 없이 그냥 해보기로 했다. 가고 또 가고 그러기를 며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야 항상 정해져 있으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수 밖에는 없었다.

밤에 친지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새벽기도 나간다”는 말은 쑥쓰러워서 차마 못하겠어서, 그냥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매일 새벽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 어디를 일찍 가야 하거든. 내가 내일 전화해줄게!” 혹 아내가 나에게 무얼 시킬려고 해도 “미안해, 내가 내일 새벽에 약속이 있어서!” 내가 뭘 좀 할 것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 나 내일 하나님하고 약속있지!”

‘약속’, ‘약속’, ‘약속’,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사용한 단어 ‘약속’, 순간 문득 깨닫게 되었다. 약속? 하나님하고?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 새벽 약속이 있는 ‘나’의 모습.

“세상에, 나는 내 자신이 귀한 지도 소중한 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만군의 왕 하나님과 매일 새벽에 약속이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니” 이른 새

벽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내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귀한 지도, 소중한 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에서 참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군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된 것은 나에겐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쳤다. ‘난 귀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과 약속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얼굴이 틀러지기 시작했다. 나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변화되어갔다.


아침에 기도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며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나는 하나님과 약속있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 삶에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삶이 시작되자 먼저 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나의 기

도는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나의 처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처지가 이러니,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해 주세요!” 이것저것을 해 달라고 하던 기도의 내용이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

기도! 나의 기도! 나의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의 기도가 바뀌자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개인 기도 제목(부부 공동 기도 제목과는 별개)이 정말 거짓말 같이 하나님의 한방으로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와!!! 기도제목 여러 개가 정말 한방에 가는구나!!! 하나님! 전 너무 지쳤어요. ‘제발 40일 기도 다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실 순 없나요’라고 했던 혼잣말마저 들으시고 힐튼 호텔로 옮겨 가기도 전에 메릴랜드 캠퍼스에서의 기도 기간 중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이제 예고편 끝났다! 네가 앞으로 살 날이 40년보다도 훨씬 더 되는데, 40일 동안 너에게 일어난 변화나 일들은 정말 예고편에 불과해!”

이제 예고편이 끝나고 나의 인생의 본편이 시작된 지 어언 2주.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시고 많은 일들을 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 벅차다. 





이형기 “헬로쉽교회 성도 여러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싱턴한인교회 (McLean 소재, 담임목사 김영봉)를 다니고 있는 이형기 권사입니다. 올해 2월 8일, 우연히 ‘헬로쉽교회의 목적과 비전’이라는 교회 소개 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물을 통해 교회 개척 및 이후 성장 과정의 건인차가 된 김원기 목사님의 ‘열려 있는’ 생각과 비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헬로쉽교회가 보여준 성장과 섬김의 리더십이 워싱턴 교민사회에서 유명하던 터라, 귀 교회의 역동성에도 함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사순절 새벽부흥회가 헬로쉽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배울 게 있겠다’ 싶은 생각에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된 귀 교회의 사순절 새벽부흥회와 이어진 금식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학회 참석으로 타주에 나가 있던 6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헬로쉽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항상 맨 앞 줄에 앉아 있던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초에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회복되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금식수양회가 끝나는 날 짧은 간증의 형태로 여러 성도들과 나누었고, 요청을 받아 이렇게 글로도 전달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헬로쉽교회가 ‘잘 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신 것을 포함해, 더 많은 부문에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따뜻함’ 또는 ‘친근함(friendliness)’입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는 와싱턴한인교회에서, 원래 제가 알던 분들 또는 같은 사역을 담당했던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이 저에게 ‘처음’ 말을 걸어오기까지 문자 그대로 ‘수 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와싱턴한인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터라 굳이 탈 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로쉽교회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저 같은 외부자의 입장에서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기대가 깨지기까지는 며칠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양호 장로님을 필두로, 이종우 집사님, 남상원 집사님, 윤일상 집사님, 홍재현 형제님, 김계희 집사님 등이 머쓱해 있는 제게 먼저 친절하게 말을 걸고 맞아 주셨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홍재현 형제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먼저 인사하고 맞아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나이 많음(seniority)’이 중요시되는 한인들에게는 더 그렇지요. 이런 관점에서, 헬로쉽교회의 연령을 뛰어 넘는 친근함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계희 집사님을 빼고는 모두 남자분들이셨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것은 헬로쉽교회가 ‘남녀유별(男女有別)’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식수양회에서도 남녀가 별도의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을 보니 더 그렇습니다. 물론,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servanthood)’입니다. 하루도 빠지 않고 그 새벽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도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나와 영상 및 음향 장비를 셋업하는 멀티미디어 사역팀과 경배찬양팀의 섬김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단 십 분이라도 일찍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열심과 섬김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힐튼 호텔에서 열리던 첫 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는 길을 미리 알아 놓았지만, 막상 I-495를 빠져 나오면서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더욱이 날도 껏어서 비마져 흠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I-495에서 벗어나자마자 형광색 옷을 입고 경광봉을 든 채 차량을 인도하는 안내팀을 발견했지요. 그 시간이 새벽 4시 25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일찍부터 나와 계셨을 것인가’하는 생각에 고마움이 잔잔히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일일이, 차량을 향해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하시던 이 분들의 모습에서 ‘은혜를 미리 다 받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함’의 능력입니다. 한 마디로, ‘Simple is better’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복잡하면 더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게, 김원기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들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기에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고 또 도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여 삼창’은 웬지 지성인을 자처하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 “주여” 하고 소리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새벽부흥회를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단순함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열정적이고 축제 분위기에 고조된 경배 경험(passionate and celebrating worship experiences)’입니다. 저는 새벽은 항상 고요하고, 침잠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잠이 확 다 달아나도록 소리높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험을 통해 제 선입견이 보기 좋게 그러나 기분 좋게 깨어져 나감을 느꼈습니다. 장로


교에서 23년, 그리고 감리교에서 20년 신앙생활을 해 오던 제게 (이제 제 나이가 몇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이것은 확실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울러, 잘 훈련된 회중의 모습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 경배찬양곡(chorus)의 특징 중 하나는 빈번한 ‘당김음(syncopation)’의 사용인데 이를 무리없이 소화해내는 여러분의 능력에 감동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스네어 드럼(snare drum)에 맞추어 2, 4박에 박수를 치는 여러분의 센스도 돋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양 대중음악(popular music)에 근간을 둔 현대 경배 찬양곡을 올바르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찬송가에 익숙한 회중의 경배찬양을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저는, 이렇게 2, 4박에 박수를 치도록 회중을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회중은 항상 2, 4박 대신에 1, 3박에 박수를 칩니다. 결국 나중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헬로쉽교회의 회중은 확실히 이런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더군요.

이렇게 되기까지,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경배찬양팀과 훌륭한 인도자들의 헌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세부 조정을 하면 더 좋은 것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역대(register)에 여러 악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편곡하는 것이라든가, 악기 주자들이 너무 많이 연주하지 않고 보컬 또는 다른 악기를 위해 공간을 남기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옥의 티’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했고, 무엇보다 영감적이었습니다.

결국, 헬로쉽교회의 사순절 새벽부흥회는 제게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귀 교회의 성도님들, 김원기 목사님 이하 여러 목회자분들, 그리고 금식수양회를 권고해 주신 김혜정 사모님께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헬로쉽교회가 이렇게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발전시켜 지금보다 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배전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식은 당연한 것

Julian Lee (8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줄리언 입니다. 저의 첫 금식수양회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매일 먹는 식사와 횟수인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 금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새로운 것을 해 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낸 금식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하루 뿐이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를 경험했던 최고의 수양회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며 기도를 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실제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는 일들을 한 결으로 차 버리고,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 수양회 중, 먹고 싶다는 유혹도 생겼지만, 유혹에 빠져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금식하는 것을 경기로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금식 도중,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먹게 되면, 그 사람은 경기에서 지고,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금식수양회에 가서, 세끼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금식수양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랜시간 동안 금식하고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식수양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금식하고도 살 수 있고, 또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 길게 그 분을 경배할 수 있는 수 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ello everyone, I am Julian Lee and I have had a great experience in my first fasting retreat. Let me share it to you right now!

This was the first time I have ever fasted for three meals, which was the typical number of meals we eat every day; breakfast, lunch, and dinner. And that, everyone is a new thing I have done in my life. This new feat is a big blessing from God. What's more,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retreat that's full of blessings. And the way we broke our fast is what I didn't take for granted.

I've known that Jesus fasted, prayed and died for us in his life. I face the temptation to eat, but it's impossible to eat and fall into temptation. Fasting is actually what we should take for granted, because we can worship God with more time to spare and kick other things that take up time to the side. (It would be better if this turned into a competition where everyone fasts for one day, but there is as chance that they could be tempted to eat, which is a test God is giving us. If someone eats, they lose the competition and drop out.)

This is one of the best retreats I've gone to (even though it only lasted for almost a day). Thank God for offering this big chance to do something new and get more time to worship Him. In fact, going to this retreat and fasting three meals without dying can prove that it's safe to fast. Anyways, God can give you the power to fast for a long time and not die at all. Then, you can worship Him more! Then, you can please and exalt Him even more that He will bless you even more!

I learned that you could fast for as long as you can and survive, and fasting opens thousands of chances that you can meet God and worship Him longer. I think fasting for a long time and worshipping Him can make us forget about earthly things indefinitely.



(왼쪽)
발표를
앞두고
맹 연습 중



(오른쪽)
떠오르는
차세대
크리스찬
댄서
다니엘

초등부 부활절 발표



계획에 없던 댄서
나다니엘 등장
그러나 숨은 실력을
과감히 보여주었다.



정신대 결의안 통과 꼭 이뤄야

김기영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동안 서로에게 행한 잘못과 오점이 있을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노라고 말하면 용서가 되고, 믿을 수 있도록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치 않고 거짓말하고, 그런 일 없었노라 우긴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으며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도 이렇진대 하물며 한 나라의 정부가 이렇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선진국이라 해도 믿을 수 없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신대 하원 결의안 통과를 앞에 놓고 우리 한인들이 뚫뚫 뭉쳐서 결의안 통과는 물론 반드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악독한 일로, 약 2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소녀와 여성들을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고 다니며 온갖 모욕과 학대, 구타와 살인, 강제 임신 중절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었습니다. 전쟁 끝에는 증거를 없애려 그들을 죽이거나 먼 외국 전쟁터에 나 몰라라 하고 버리고 가버린 이 모든 일들이 일본 정부의 합법적인 만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또 그때 그 위안부들이 다 죽고 얼마 안 남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뒤로 감추고, 이젠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며 변명만 하고, 또 아이들 교과서에는 이런 일 없었노라 적어 놓는 일본 정부의 비겁한 태도에 우리 모든 한인들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뚫뚫 뭉쳐서 반드시 그들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서욱자 회장님을 비롯한 정신대 대책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 바위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이번 기회에 이 바위를 완전히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동안 정신대 일에 관해서 본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힘없는 정부는 탓하지 말고 우

리 보통 사람들인 미주 한인들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때 끌려간 정신대 여성들은 우리들의 할머니들 혹은 증조 할머니들입니다. 그 꽃 다운 나이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분들의 힘들었던 인생들을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관심한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다행히 여기 교회들과 한인 단체들이 서명 운동, 편지 보내기 운동 등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가 특정 인물들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내야 할 내 일이라 여기고 이루어냅시다.

특별히 재능있는 한인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글 쓰는 분들은 정신대에 관한 소설이나 글을 신문에 써서 온 세계에 알려주세요. 영화 만드시는 분들, 선들러리스트 (Schindler's List) 같은 영화 만들어 주세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정신대에 관한 그림이나 음악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인 1.5세나 2세 분들은 미 주류사회에 정신대 이야기를 꼭 알려주세요. 신문이나 TV 등에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 한인임을 꼭 알려주세요.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지금도 독일 때문에 피해 입은 나라에 독일 수상이 가게 되면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독일은 벌써 수 차례 사과하고 그에 따른 배상도 철저하게 해 왔는데도, 아직도 수시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하원 결의안 통과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므로 우리 한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늙었든지 젊었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협조해 이번에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꼭 받아냅시다. 우리가 뭉침으로 정의가 승리함을, 거짓말하고 감추고 인정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 비겁한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채경숙

몇 십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그저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사귀며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분쟁과, 분란 그리고 싸움들을 목격하면서 나는 서서히 교회 생활이 싫어졌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찾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헬로쉽교회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곧잘 적응하며 오이코스 식구들의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다시 찾았고, 제자훈련 과정과 집사 과정을 훈련하는 가운데 ‘화해의 아이’란 책을 읽고 놀랍게도 가슴이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지구 끝 어디에 선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들을 위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노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 윤자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 곳에 미용기술이 필요하니 선교가자”고 몇 번이나 권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 자신에게 믿음도 없고 마음에 선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 윤자에 선교사님께 “예, 갈 때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했었습니다.

윤자에 선교사님께서 가끔씩 미국에 들어오셔서 선교보고와 현지의 사역 활동 사진들을 보여 주시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선교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 전인 2005년에 머리가 심하게 아파 응급실에 실려 갔었습니다. 뇌막염으로 고통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식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것도 잠시, 아픔이 사라지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통의 휴유증은 오래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조그만 신경을 써도 머리가 아프곤 하여

서 성경공부와 교회봉사, 새벽기도 등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그러던 중 윤자에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후회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 윤자에 선교사님께서 내가 선교를 가도록 기도하셨음을 느낍니다. 제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윤자에 선교사님의 기도 덕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 윤 선교사님이 더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선교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의 오이코스에서 새벽기도를 나가시는 김기영 집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삶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던 중 이연일 권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선교 같이 가자고, 유카탄으로!”.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순절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선교 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선교가는 길이 힘이 들고, 훈련 또한 힘이 들 것 같아 망설이다가 어렵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선교가기로 결정하고 난 후 영적싸움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영적 싸움이 힘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한달 반 가량 시간이 흐른 지금도 영적 싸움으로 매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과 기도와 지혜로움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약한 면을 강하게 하시려고 그런 영적싸움을 주시고, 그런 시련을 통하여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고난 속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고난을 잘 인내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오래오래 참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제가 선교 갔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할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장승민 목사, 장창희 사모, 장세영 (9세), 장지명(7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가정

장승민 목사 가정 인터뷰

큰 키를 구부리며 두 손 잡고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얼굴에는 따스함이 묻어난다. 그 눈빛에는 순박함과 함께 자신에 찬 이지적인 면도 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질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지요.

장승민 목사: 아내 전(장)창희 사모와 아들 세명 (John 9세), 지명(Daniel 7세)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남 목포에서 1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주민이 약 10000명 정도 되는 비금도에서 목회하시고, 누님은 뉴저지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서울에서 살고 있지요. 처가댁은 모두 서울에 계시고 아내는 5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질문: 어렵고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승민 목사: 아버님은 해양대를 졸업하시고 외양어선을 타시던 분이셨는데, 외항선을 타는 많은 분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건강치 못한 것을 보고 이게 아니다 싶어 늦게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집안 10남매의 막내로 자랐기에 할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지람과 질책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안 최초의 기독교인이셨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결단을 굽히지않고 신학공부를 마치고 선원 시절 서원하신 대로 섬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두살 정도 되었기에 아버지를 따라 가족들 모두 섬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지요.

도시의 보통 아이들이 책가방에 책과 필기도구 넣어 공부할 때 저는 보자기에 싸서 학교 다녔고, 졸업식 때 고무신을 신고 참여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보았으니까요. 서울과 목포와 수준 차이가 10년, 목포와 섬과의 수준 차이가 10년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뒤떨어진 생활이었겠습니까.

그토록 가난한 저의 생활과 제한된 교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주변의 생활을 보며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며 아버지의 결단에 반항 아닌 반항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수록 아버지는 누님과 저를 엄하게 교육시키셨지요.

질문: 그렇게 싫어서 반항하던 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장승민 목사: 중학교 때부터 목포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생활에서는 계시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을 부인하였습니다. 차가움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증오하는 자세로 성장하였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직접 대항을 하기 위해 대학 선택하는 순간에 일격을 안겨드리고 쾌감에 젖었습니다.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물론 전공은 독어독문학이였지만 의무적으로 불교학을 1년간 이수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비뚤어진 생활을 하며 1학년을 마친 겨울 방학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하신던가요.

장승민 목사: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한다는 저의 말에 아버지는 몹시 감격해하시며 후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난 것보다 마음에 하나님을 찾은 모습이 더 흐뭇하셔서 그러셨겠지요. 그 이후 제가 목회지를 찾는 것에서부터 모든 중요 결정에 깊은 기도를 하시며 응원하십니다. 너무 고맙고 존경스런 분이십니다.

질문: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장창희 사모: 저희가 부천에 위치한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KISA라는 신학교 연합 제자훈련 모임이었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저는 그 모임의 제자 훈련 리더로 섬기고 있었고 남편은 93년 대학원 입학 하하면서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과 배움의 갈망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는 글이 있었는데 핵심만을 쓴 글, 그림과 더불어 소개한 내용, 인생의 표어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보며 호감이 갔고, 첫인상이 ‘생각이 깨끗하고 건전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부천이었기에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 지하철 타는 1시간 20분동안 인생과 비전을 나누고 미래를 확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장승민 목사: 한 학기 탐색 후에 2년 반 연애기간을 거쳐 3학년 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어 손을 바쳤던 것처럼 나의 손을 받쳐주고 있어달라고 하였지요. 아내는 흔쾌히 답을 하였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창희 사모: 함께 있는 것이 재미있고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다.

질문: **신혼 시절이 그리 만만치는 않으셨을텐데 어찌 지내셨는지요.**

장창희 사모: 저희 다섯 형제 중 세번째로 1996년 1월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살던 자취집으로 제가 들어갔지요. 부모님은 격려하셨고 언니, 오빠는 말리는 분위기였으나 그래도 좋았습니다. 목회지를 결정하기까지 약 두 달 동안 ‘정말 결혼을 잘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결정 후에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곳은 목포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는 추포도라는 섬에서입니다. 섬에서 사는 동안 문화 충격을 받기도 했지요. 반찬 가게가 하나도 없고, 빗물을 끓여서 식수로 대치하는 생활과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절이 돌아보니 축복의 시간이었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승민 목사: 저는 늦게 신학공부를 했기에 많은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책도 여유있게 읽었고, 실제 목회가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되어 막바지 삶을 사는 사람들,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려와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는 없이 연로하

신 분들만 계셔 돌아가실 경우 직접 장례를 집행했던 일,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던 일들 등 일반 목회지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며 일주일에 보통 13회 정도 설교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인생 막바지 사는 분들에게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절실히 가르치고 깨달았던 때였지요.

질문: **열악한 섬 추포도를 가시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세요.**



장승민 목사: 저희 아버지의 목회 방향과 연관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섬을 찾아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다 그 목회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새로운 섬을 찾아서 떠나시지요. 아버지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학교를 옮겨야했기에 저는 초등학교를 2회, 중학교를 한번 옮기고 두번째 옮겨야 하는 시점에 목포로 나가서 공부한 것이지요.

결혼 후 2월 중순에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목회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추포도라는 섬에 목회자가 필요한

데 네가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 안 통하는 선교지도 가는데 말 통하는 곳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섬 밖의 다른 사역지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능력만 믿고 바라고 떠났던 그 때였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파타임을 하던 때와 달리 첫 풀타임 사역지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갔던 곳이기에 더욱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고, 한 영혼의 귀

한 가치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사모님은 살면서 이 남편, 목회자의 아내가 되기를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이었나요.

장창희 사모: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목회지를 찾기까지 약 1달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남편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곳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청빙이 들어왔지만 기도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참 좋은 면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것도 좋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확신을 갖고 행하는 것이 존경스러웠지요. 친정 식구들도 저를 보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어서 결정했느냐고 하는데 그 시절 저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 몰랐기에 섬 목회를 결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섬 목회 4년, 서울 장충단 성결교회에서 4년, 미국 유학 4년 동안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사는 나날이어서 좋습니다. 장승민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것이 좋고 영혼을 만지는 일을 가까이서 함에 보람이 있습니다.

질문: 최근 들어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장승민 목사: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는 정말 바쁘고 분주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목회사역은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었는데 미국에 유학와서 살며 가정을 살려주고 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성령님을 만난 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시기입니다. 성경 곳곳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한국에서 좀 심한 겁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유학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제게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새벽부흥회에서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장승민 목사

춤추고 뛰놀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주님이 있어 행복하고 주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것입니다.

장창희 사모: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간순간들입니다. 귀한 만남,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을 좇는 나날입니다. 늘 즐겁고 기쁩니다.

질문: 헬로쉽교회에서의 포부는 무엇인지요.

장승민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꿈입니다. 복음안에서, 진실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소망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머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묘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토록 미워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들의 아픔과 울부짖음을 아시고, 아들은 물론 그 아들의 아들을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한다. 좋은 날씨 좋은 날에 시간내어 주셔서 서로 좀 더 알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이연일>



유치부
부활주일의 표정





산장에서의 3박4일

다시 만난 나의 하나님

권영식 집사 (필그림 교회)

나는 ‘Tres Dias (TD)’에 대하여 아는 것 없었고, 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담임목사님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평희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고 TD에 저를 추천하였다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도 참가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전에 큰 도움을 받은 정장로님이 추천한다고 하시고 목사님도 권고하셔서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엉겁결에 참가하겠다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해주시지 않으시더군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참가하게 되었고 산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속에서 이왕 가는 것이니 이번에 현재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기도해서 응답받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4-H 클럽에 도착하여 침묵속에 이상한 하루 밤을 지내고 다음날 TD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음치라서 그런지 찬송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찬송 중에 손을 들어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과장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찬양이 끝나는 시간을 맞추어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첫날 찬송 중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었지,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모욕, 수치, 고통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한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후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울먹거리게 되고 찬송이 좋아져 나 혼자도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첫날 세 번의 식사 시간이 있었고 식사 시간마다 캔디데이트중 한사람이 자원해서 식사기도를 하라고 식사 시간을 진행하시는 팀멤버 안영섭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캔디데이트들은 서먹서먹해서인지, 아니면 점잖아서인지 나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나는 대중 앞에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면 내가 자원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해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침대에서 기도 중에 “오늘 아침 식사 기도를 네가 해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속에 들렸습니다. 제가 한 번도 대중 앞에서 기도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 했더니 “내가 있으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원자가 섰듯 나서지 않았고 저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 걸어나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침식사 기도를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Spiritual Leader 박상수 목사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할 것인지 저는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재혼할 약혼자와 함께 살 집을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는 일들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와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장에 오는 버스 속에서 생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외친 기도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였습니다. 나에게는 10여년 동안을 용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만큼 교만했습니다.

IMF 때에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만큼 나의 회사는 재무 구조가 단단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던 중, 나의 회사에 투자할,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그 여자와 두 가지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게 되었고, 사업 관계로 자주 만나다보니 불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의 회사의 비리 및 약점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98년 6월 어느날, 그 여자가 나를 고소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고소한 후에도 전혀 내색치 않고 나를 계속 만났던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항하였지만 한국의 최고 권력자들까지 동원된, 권력에는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권력이 두려워서 하나, 둘 심지어는 내가 세운 나의 회사 이사들까지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고, 나는 그 여자의 계획된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에게 이혼까지 당하고, 1998년 12월 이곳 미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인간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복수심으로 가득한 악몽 같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하면 잔인하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가를 궁리하고, 또 궁리했으며 그것을 시행하고자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길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황폐해진 정신과 피폐해진 육체로 1년을 지낸 나는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하여 교회를 찾게 되었고, 찾았던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필그림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새

생명반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뜻이 계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 미국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미국 생활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프지만,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나는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지만 그 여자만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말씀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수차례 들었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인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장에서 소리 외쳐 기도한 후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또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팀 멤버들을 보면서 나도 남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를 용서하게 되었고, 산장을 떠날 때는 그 여자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산장을 내려온 후에는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그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고는 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TD

김선영 (뉴포트뉴스의 열린교회)

LPTD에 참석하기 전에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타성에 젖은 습관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LPTD 24기에 참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수련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무슨 변화

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이스타들의 간증과 리더셨던 박상수 목사님의 말씀과 많은 팀 멤버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접하면서 마침내 저는 사모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 전에, 찬양시간에 불렀던 가사 중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가사가 기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제게 들려질 때 그동안 하나님께 가졌던 섭섭한 감정이 녹아지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경험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 때문에 얼굴에는 피가 흐르며 굳어진 피

와 먼지로 뒤덮인 얼굴에 또한 피와 먼지로 더럽혀진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시며 더러운 얼굴과는 다르게 하얀 이를 보이시며 다정하게 웃으시고 저와 같이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미워했던 아버지가 이해되고 용서가 되고 빨리 돌아가서 안아드리며 사랑한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용기가 되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혼자 누려서는 안 될 것 같아 LPTD 25기 팀 멤버로 봉사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날짜가 가까워질 때 봉사하기 어려

웹시바 바디워십 (3월 11일 2부 예배 중에서)



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팀멤버 미팅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가사가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주일날 감기까지 겹치고 먹던 감기약도 놓고 오는 바람에 다른 팀 멤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가이드 설 때 했던 잠깐의 간절한 기도가 다음날 응답이 되어 목이 많이 쉬긴 했지만 상태가 좋아져 끝까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데코 팀 왕초이자 베테랑, 초짜들을 열심히 챙기시기까지 한 양소영 사모님, 저와 같이 처음이었지만 빠른 손놀림으로 많은 일을 한 안드리아 자매, 또 틈틈이 바쁜 와중에도 도와주셨던 팀 멤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25기 데코 팀이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식사시간에 틈틈이 볼 수 있었던 25기 캔디테이트 멤버들의 차츰 밝아지는 얼굴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몇 배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쁘게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팀 멤버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De Colores!

2007 부활절 예배 모습



훈육하라 사랑하라 XI

신율미

지난 호에서 자녀들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긍정적인 발언을 아이들에게 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고, 이번호에서는 자녀를 연구하고 그의 독특함을 이해하는 훈련을 해보기로 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는 이 설문지를 갖고 다른 자녀와 다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와 동시에 인터뷰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의 대답이 둘째 아이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이 하신 결과를 헬로쉽 교회 웹사이트 (www.fellowshipusa.com) '우리하나되어'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연구하고 그의 독특함을 이해하라

자녀의 자긍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자녀, 즉 그의 성격, 개성,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의 생각과 느낌들을 알아야 합니다. 독특한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자녀를 이해할 때에 비로소 당신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에게 의미있는 방법으로 그를 세워줄 수 있게 됩니다.

I. 아이를 연구하라

연구할 자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기질이 당신과 가장 많이 다르거나 당신이 다루기 가장 힘든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옆에 쓰고 묻는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다른 분이 하신 결과를 헬로쉽 교회 웹사이트 (www.fellowshipusa.com) '우리하나되어'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I. 아이와 인터뷰를 하라

아이의 세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목록을 이용하여 만 3세 이상의 자녀와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아이가 한 문장에 대해 서너 개의 답을 갖고 있다면 그 답 모두를 기록하십시오. 한 아이와의

아이의 이름: _____ 나이: _____

아이를 설명할 때 당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 서너 개를 기록해 보십시오.

- 1.
- 2.
- 3.
- 4.

■ 좋아하는 장난감 두 가지

- 1.
- 2.
- 3.
- 4.

■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써보십시오.

■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 1.
- 2.
- 3.

■ 그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 아이가 겁내고 놀라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 아이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를 고르십시오)

주도자 (), 따르는 자 ()

■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 아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웅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1)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

2) 부정적인 성격적 특성:

■ 이 아이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마음 속에 늘 갖고 있지만 자주 나누게 되지 않는 꿈이나 욕망, 기타 여러 감정들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III. 잠언 22:6의 바른 의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철저하게 독특한 인격체입니다. 그와 똑같은 존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만의 독특한 성격, 능력, 인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당신은 그에 대해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해, 즉 그의 습관, 기호, 인격이나 기

질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당신 은 전혀 새로운 한 인간을 알아가는 신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은 잠언의 짧은 구절, 22:6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이이름:	아이이름:
1	나는 ...을 하고 싶다.		
2	엄마들은 ...하다.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4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5	내가 그 친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6	나는 어떨 때가 무서운가?		
7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8	아빠들은 ...다		
9	오늘 내 기분은...		
10	나는 ...때 화가 난다.		
11	우리 가정에 대해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것은...		
12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하겠다		
1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이다.		
14	우리 아빠는 ...다.		
15	우리 엄마는 ...다.		
16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다.		
17	나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18	내가 크면 나는 ... 하겠다.		
19	내게 어려운 일은 ...이다		
20	나는 ...때 제일 싫다.		
21	나는 ...때 제일 기분이 좋다.		
22	나는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23	내가 선생님이라면, ...하겠다		
24	나는 ...때 자랑스럽다		
25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은 ...이다		
26	나는 ...을 잘한다		
27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다		

늪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리라.”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가르친다(train up)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이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고, 안에서

(in)란 ‘...에 보조를 맞추어’, ‘...에 협력하여’의 뜻입니다. 길(way)이란 삶의 과정, 행동방식이나 성격, 경향을 뜻합니다. 간다(go)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또는 ‘...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잠언의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깨달음	
긍정적인 경향, 성격, 재능이나 능력	각각의 긍정적인 성향을 격려하고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1.	
2.	
3.	
4.	
부정적인 경향, 성격	이러한 부정적 경향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1.	
2.	
3.	
4.	

긍정적인 특성의 예

사회성이 좋다 -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끔 친구들과 함께 밥을 지내게 해준다.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들을 기꺼이 환영한다.
-----------------------------	--

부정적인 특성의 예

늦다 - 아침에 옷 챙겨 입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좀 더 일찍 깨운다. 준비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준다. 전날 저녁에 미리 옷을 준비해 놓는다.
------------------------------	--

“자녀를 교훈하고 지도하되 이미 그에게 결정되어 있는 성격이나 경향에 따라, 그것에 보조를 맞춰 그를 지도하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드신 방법에 따라 그를 지도하려면 아이에게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사랑과 훈육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각 자녀를 위한 독특한 지도 방법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자녀를 연구해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독특한 지도방법을 밝혀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아이의 경향을 알게 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빚으신 방법에 맞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IV. 잠언 22:6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1 단계: 앞에서 한 인터뷰 설문지를 통해 아이에 대해 얻은 자료를 복습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음에 나오는 ‘내 아이에 대한 깨달음’표의 첫번째 항목을 완성시켜 보십시오. 아이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아이의 긍정적인 특성을 확인하면 윗부분에 기록하고, 부정적인 특성을 확인하면 표의 아랫부분 첫 칸부터 기록해 넣으십시오.

당신 자녀에게 있는 경향 중 당신이 처음에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 언급한 긍정적인 특성과 다음에 열거하는 부정적인


특성을 참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한 깨달음’표에 타고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을 첨가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닌 습관이나 행동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 손톱을 깨문다). 이러한 것도 기록하십시오.

2단계: ‘내 아이에 대한 깨달음’표의 오른쪽 칸에 가능한 여러 특성에 대해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보고, 예로 들어 놓은 표를 연구해보십시오.

3단계: 계획을 실천해보십시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각 아이의 독특한 개성에 맞게 아이를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3~4개월 후에 이 표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계획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아이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평가해보십시오.

4단계: 나중에, 한 아이에 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긴 후에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또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살피고 그 아이의 선악의 독특한 경향을 따라 그를 지도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번 호에서는 자신의 아이의 독특함을 알아보는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직접 관련되는 집중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연구해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특성들

공격적이다

비열하다

비판적이다

함부로 말한다

지배욕이 크다

자만심이 강하다

참을성이 없다

경쟁심이 지나치다

다른 사람에게 무심하다

용서를 잘하지 못한다

게으르다

사랑스럽지 못하다

속임수를 쓴다

우쭐댄다

시간을 못 지킨다

부정직하다

완전주의다

완고하다

순종하지 못한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성미가 까다롭다

예의가 부족하다

거칠다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정돈을 못한다

보챌다

지나치게 심각하다

일하기 싫어한다

인색하다

우유부단하다

말이 너무 많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고마움을 모른다

친절하지 못하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오장석

“홍수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십 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창 7:17-20)

노아홍수는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말과 함께 절정에 이른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다(all)’가 어떤 의미냐 하는 점이다. 성경은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말로 전 지구가 물로 덮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매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홍수에 대한 기사를 접한다. 한 해도 그냥 지나치는 해가 없을 정도로 홍수는 우리 곁에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홍수라 해도 도시 주변에 있는 산을 덮었다는 홍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물은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빠르게 평형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때로 낮은 곳으로의 이동이 밀려들어오는 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 그 결과로 지역적인 홍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마을의 집들을 덮거나 작은 언덕들을 덮는 모습들은 쉽게 관찰되어도, 산을 덮는 홍수를 본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홍수에서 언급되고 있는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러한 홍수를 본 적이 없기에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쉽게 주장한다.

혹자는 노아홍수가 전 지구적인 규모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먼저 ‘다(히브리 말로 골(kol))’라는 말의 의미가 ‘모두(all)’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물론 성경에서 ‘다’라는 말이 항상 ‘전부를 의미하는 모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출 9:25) 여기서의 ‘다(또는 모든)’는 밭에 있는 하나의 채소도 남기지 않았고, 들의 나무 한 그루도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 41:56-57)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왕상 1);24)

그렇다고 해서 ‘다’라는 말을 항상 부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 2:24)

위의 예들에서 쓰여진 ‘다(또는 모든)’는 명확하게 부분적인 의미가 아닌 ‘전부’를 의미하고 있다.

하나의 다른 예를 더 살펴보자.

“그 때에 가이사 야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눅 2:1) 같은 본문에 대한 킹 제임스 (KJV) 영어 버전이다. “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there went out a decree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taxed”

언뜻 보면 위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라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가 아닌 부분적인 의미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호적 조사를 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다’라는 말이기보다 ‘세상’이라는 말이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우메네(oikoumene)’로, 이 말은 그 당시 성경뿐

만 아니라 헬라 문학에서 오로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사용된 ‘다’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전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영어 성경 NIV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정리하자면, ‘다’라는 의미가 부분적인지, 전부를 나타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시 노아홍수로 돌아가자.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 한글 성경에는 ‘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원문에 따르면 ‘다’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다. “‘all’ the high mountains under the ‘entire’ heavens were covered (NIV)” 다시 말해, ‘모든’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이다.

우리는 지난 호에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경은 홍수가 어느 지역의 한 산을 덮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하늘 아래 모든 산, 즉 전 세계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물러나 ‘다’라는 말의 의미가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갈등이나 충돌은 없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자.

먼저 홍수의 기간이다. 물이 증가하는 기간이 150일, 물이 감하는 기간이 150일,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모두 합하면 총 371일에 달한다. 지역적인 홍수로 접근하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간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너무나 긴 시간이다.

다음의 방주의 목적이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

라” (창 7:3)

생물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홍수가 지역적이었다면 방주를 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기보다는 차라리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반대편 지역으로 휴가를 떠났다 홍수 후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편이 더 타당하다.

동물들의 씨를 보존해야 할 필요 역시 없다.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수 십 년에 걸쳐 축구장 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홍수가 끝나갈 무렵 물이 감하였나 알아보려 새들을 날려 보냈다는 이야기는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새들을 날려 보내기 이전 다른 새들이 먼저 날아와 하늘 위를 가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노아홍수는 신약에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표로 사용되었다. 마지막 때에 임하는 징조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라 하여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산들을 성경의 묘사대로 덮으려면 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다. 그런데 노아홍수가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거짓이 되고 만다.

혹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지역에만 모여 살았고, 그 지역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홍수의 경계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옆 동네로조차 피하지 못해 모두 죽었다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사도 베드로 또한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면서 노아홍수를 예로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6-7) 노아홍수가 지역적인 홍수이며, 부분적인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의 말 또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 역시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말이 되고 만다.

성경은 일관되게 노아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였음을 말하고 있다. 노아홍수가 지역적인 홍수라는 개념은 성경 밖에서 나온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하여 성경이 사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적인 홍수라는 개념으로도 노아홍수를 짜 맞추 수가 없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과 상충되며, 결국에는 노아홍수가 하나의 신화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만다. 단순히 성경의 한 부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 것이다.


지층과 화석을 노아홍수로 접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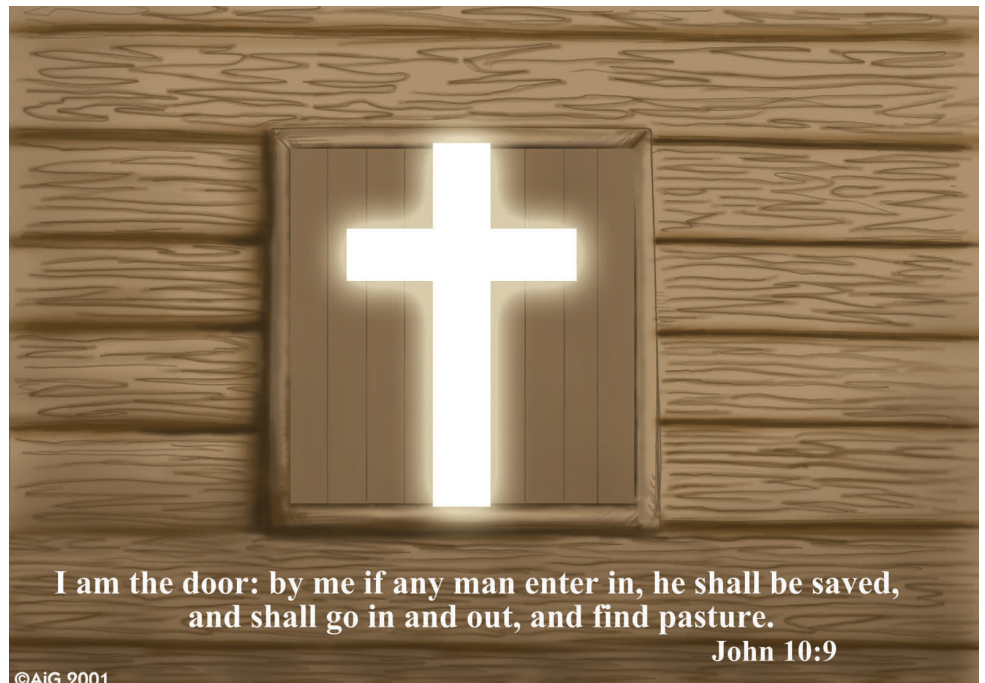
아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층과 화석을 노아홍수라는 ‘사건’의 개념이 아닌 ‘오랜 시간’이라는 진화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려 한다. 이런 점에서 지층과 화석에 대한 해석은 데이터에 접근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오랜 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전 세계를 덮는 홍수였지만,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씨가 보전되고 유전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성경은 또한 일관되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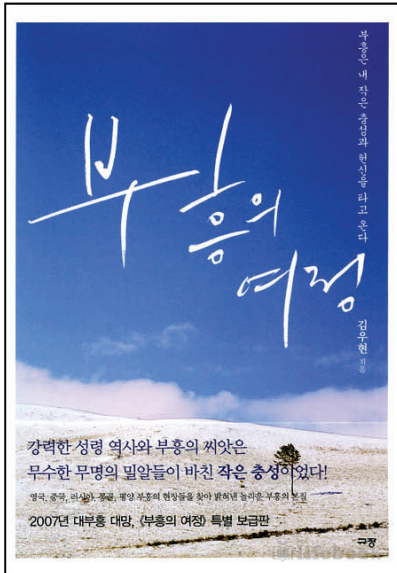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36)

왜 꼭 예수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2) 




부흥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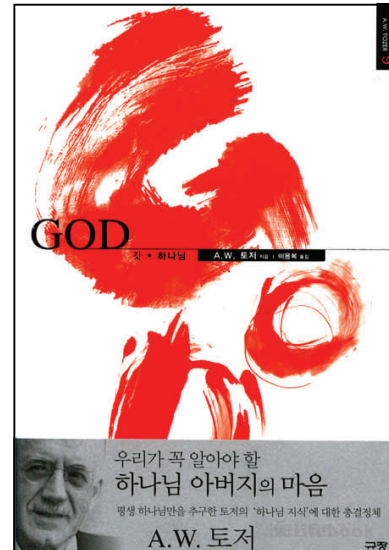
저자: 김우현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구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흥을 이루십니다. "부흥의 불길은 다 사위어버린 잿더미들에서 혹 오늘 우리의 부흥의 불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부흥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 길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경로들을 탐사 순례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늘 불길의 발화점인 웨일즈로, 그 불길이 번진 미국 아주사로, 캐나다로, 중국 심양으로, 몽골로, 북한의 평양으로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불길은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신경센터"의 면밀한 작동 가운데서 땅 끝을 지향하여 번져갔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땅 끝 오지의 선교지에서 아내를, 어린자녀를, 본인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하늘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순교자의 피의 거름 위에서 피어난 하늘꽃이었습니다. <부흥의 여정>은 답답하고 무기력한 부흥의 긴 침묵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늘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나리 같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불이 붙을 수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하늘의 불바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강림할 수 있습니다. 

- 책표지에서

GOD · 하나님



저자: A.W. 토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평생 하나님만을 추구한 토저의 '하나님 지식'에 대한 총결정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토저의 글은 죽은 활자가 아니다. 토저의 이 책을 읽어나갈 때에 활자가 불끈불끈 일어서서 눈으로 빨려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간과 행간에서 거룩한 천둥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아파하는 토저의 더운 눈물, 영혼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토저의 뜨거운 욕성, 아니 이 시대 선지자의 사자후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사자후는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는다. 

-한국어판 편집자의 글 중에서

교회행사

- 5월 6일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 (반지 서약식, MD)
새가족 환영 (MD)
중고등부 예술의 향연/부모님 만찬 (MD)
- 5월 11일 (금) - 13일 (일)
남성 수양회 (EC)
- 5월 13일 (일)
참된 사랑은 기다린다 (반지 서약식, VA)
- 5월 19일 (토)
Fun Run (EC)
- 5월 20일 (일) - 23일 (수)
LPTD 26기 (여성)
- 5월 23일 (수) - 30일 (수)
이스라엘 성지 순례
- 5월 27일 (일) - 6월 2일 (토)
대학부 수양회 (EC)



아이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

헬로쉽의 어느 날

■ 교회 청소를 한 후 교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랐던 내용

사무장 김숙영 권사: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에 동참해주셔서 교회 밖 청소가 깨끗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김원기 목사: 아, 나는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기억했다면 별도로 도움은 안 되더라도 기쁨조의 역할은 했을 텐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궁금해 할까 봐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하혈이 심해서 급하게 의사를 봤는데 '뇌시경'을 하자고 해서 어제 했습니다. 큰 일이라도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길래 아무 일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년 후에 다시 한번 오라합니다. ㅎㅎㅎ

(뇌시경? → 내시경) ^^;

발행인 : 김원기
편집위원 :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복진웅, 이창환
기자 : 정선희
타입세팅 : 안선희
인쇄 : KOREA Monitor

Washington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